

초록번호 : I-1-1

제 목	국 문	재가 지체장애인의 삶의 질 평가		
	영 문	Quality of Life(QOL) of the Physically Disabled		
저 자 및 소 속	국 문	이영숙, 박기수, 손재희, 감 신, 이종영, 천병렬, 예민해 경북의대 예방의학교실		
	영 문	Lee Young Sook, Park Ki Su, Son Jae Hee, Kam Sin, Lee Jong Young, Chun Byung Yeol, Yeh Min Hae Dept. of preventive medicin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분 야	역학	발 표 자	이 영 숙(전공의)	
발표 형식	구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 연구중 ( ○ ) → 완료 예정 시기 : 97 년 12월			
<p>1. 연구목적</p> <p>세계보건기구(WHO)가 건강의 개념을 정의한 이후 건강을 측정함에 있어서 다양한 측면을 다루게 되었으며, '삶의 질(Quality of Life)'이라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삶의 질에 관한 여러 연구들은 질병의 치료 및 생명의 연장과 함께 심혈관 질환, 만성 폐쇄성 폐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등의 만성퇴행성 질환과 중앙 환자 및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신체적 운동능력, 정신적 건강, 육체적 건강, 사회적 활동, 사회적 관계 등을 고려하고 있다.</p> <p>본 연구는 대구시내 재가장애인 중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평가하고, 이와 관련된 요인을 조사하였다.</p> <p>2. 연구방법</p> <p>1997년 당시 등록된 대구시내 재가 장애인 건강검진과정 중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지체장애인 440명을 대상으로 직접 면담하였다.</p> <p>연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리커트 척도를 이용한 스스로 생각하는 건강수준과 삶의 만족도, 그리고 Wood Dauphinee 등이 장애인의 정상생활 적응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개발하여 삶의 질 평가 도구로 타당성이 검증된 Reintegration to Normal Living Index(RNLI)를 조사하였다. RNLI는 모두 11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문항의 기능항목과 3문항의 인지항목으로 구성되어, 총점은 정상생활로의 적응정도가 가장 좋으면 22점, 가장 나쁘면 0점이다.</p>				

### 3. 연구결과

연구대상 지체장애인 440명의 평균 연령은 48.1( $\pm$ 12.1)세이었으며, 남자가 326명(74.1%), 여자가 114명(25.9%), 기혼이 86.0%, 중졸이하의 저학력이 67.7%, 무직이 62.3%를 차지하였으며, 스스로 생각하는 경제상태, 건강수준, 삶의 만족도에서는 76.7%가 낮은 경제상태를, 87.5%가 보통이하의 나쁜 건강수준을, 90.7%가 보통이하의 불만족을 나타내었고, 지체장애이외의 만성 질환을 동반한 환자가 43.9%였다. 장애등급별로는 1등급부터 6.2%, 23.3%, 29.6%, 22.9%, 12.7%, 5.3%로 비교적 대칭적 분포를 보였다.

삶의 질을 평가한 전체 점수의 평균은 16.22( $\pm$ 4.81)이었으며, 기능항목과 인지항목의 평균은 각각 12.24( $\pm$ 3.40), 3.98( $\pm$ 2.08)으로 비교적 높았으며, 전체 점수가 13점이상을 보인 군이 76.4%, 기능항목 9점이상이 86.6%, 인지항목 4점이상이 63.2%이었다.

삶의 질에 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연령, 성, 결혼유무, 교육수준, 경제상태, 직업유무, 장애이외의 만성 질환유무, 장애등급 등이었으며, 다중회귀분석에서는 연령, 교육수준, 직업유무, 장애등급이 삶의 질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 4. 고찰

본 연구에서 전반적인 지체장애인의 삶의 질 점수는 높은 편이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노출기피로 인하여 교육수준이 낮아지고, 사회적 활동의 위축으로 유직업자가 줄어들며, 이로 인해 경제적 상태가 낮은 소외된 집단으로 점점 악순환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현행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분류 및 등급은 삶의 질과 그 관련성이 낮은( $r=0.23$ ) 것으로 보아 현행 분류방식 보다는 개인의 신체적 기능을 포함, 소득능력, 일상생활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장애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요구된다.

이에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객관적인 삶의 질 평가 지표 개발하여 그들의 삶의 질에 부정적으로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한다면, 장애인들을 위한 효과적인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도움될 것이다.